네그리의 레닌

1. 알뛰세르가 수학/물리학/역사과학 사이의 인식론적 단절을 강조했다면, 그에 기초하여 그리스 고전철학/데카르트에서 비롯된 근대철학/맑스와 레닌에게서 야생적으로 등장하고 알뛰세르 자신에게서 성숙되는 맑스주의철학(철학의 새로운 실천) 사이의 단절을 강조했다면 네그리는 존재론적 단절을 강조한다. 네그리는 주체성의 집단적 몸의 존재론적 단절과 이행을 자신의 주요한 이론적 탐구과제로 삼는다. 반인반수(켄타우르스)/인간/사이보그 사이의 단절(이에 대해서는 네그리,『혁명의 시간』, 갈무리, 2005 참조), 전문노동자/대중노동자/사회적노동자 사이의 단절(이에 대해서는 네그리,『혁명의 만회』, 갈무리, 2005) 민중/다중 사이의 단절(이에 대해서는 네그리와 하트,『다중』, 세종서적, 2008) 제국주의/제국 사이의 단절(이에 대해서는 네그리와 하트,『제국』, 이학사, 2001) 상업자본주의/산업자본주의/인지자본주의 사이의 단절(이에 대해서는 Multutudes 지에 실린 네그리의 글들 참조) 등에 대한 네그리의 탐구는 모두 존재론적 단절과 이행을 주체성의 생산과 재생산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의 표현이다. 알뛰세르가 맑스의 시간 개념을 이데올로기 공간과 학교를 중심으로 풀어낸다면, 네그리는 그것을 생산공간으로서의 공장 및 사회를 중심으로 풀어낸다.
2. 19세기 말의 레닌이 강조한 자연발생성 개념은 네그리에게서 계급 주체성, 자율성의 개념으로 전유된다. 그것은 존재론적 활력이며 새로운 세계의 잠재력이자 새로운 삶을 여는 근원적 힘이다. 자연발생성은 부단히 한계지워지지만 바로 경험을 통한 그 자신의 재구성에 의해 그 한계를 넘어서려하고 또 그렇게 하는 능력이다. 특정한 시간 속에서 자연발생성은 항상 한계지워지지만 그것에 결정적으로 영구히 주어진 한계는 없다. 그것은 무한할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힘, 생명력이다. 자연발생성은 존재력, 생명령, 창조력에 붙여진 잘못된 이름이다. 존재의 활력 외부에 아무 것도 없다. '의식성'조차도 존재의 활력의 표현인 한에서 '자연발생성'의 일부로 이해되는 것이 옳다. 생명력, 창조력, 발명력으로 이해된 존재 개념 속에서 의식성과 자생성의 대립은 무의미해진다.
3. 20세기 초의 레닌이 강조한 의식성 개념은 네그리에게서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 대한 독해를 경유하면서, 대중지성, 다중지성, 떼지성의 개념으로 전유된다. 정치적으로 의식적인 활동은 집단적 몸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전위당은 레닌 당대의 전문적 노동자가 노동 내부의 다양성을 단일한 집단적 몸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화의 형태였다. 네그리는 그것을 레닌의 계급합성론으로 이해한다.(계급합성 개념에 대해서는 조정환, 『아우또노미아』, 갈무리, 2003 참조) 선진노동자의 정치적 계급의식화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것은 당대에 전문 노동자가 노동계급 대중에 대해 헤게모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급구성적 진단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네그리는 1968년~1973년 사이 이탈리아 노동계급의 집단적 몸은 대중적 전위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본 바

있다. 케인즈주의는 전문노동자의 권력을 해체시켰고 노동계급은 대중노동자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정치적 조직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힘>은 그러한 대중적 전위로서 구상되었다. 대중적 전위는 전위이지만 대중밖에 있는 전위가 아니라 계급의 특정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주도적으로 드러내는 지도적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학생, 여성 등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을 경험하면서 대중적 전위 개념은 폐기되고 노동계급 자율의 개념으로 이행한다. 이후 집단적 몸의 정치적의 의식적인 조직화의 역할은 대중지성이 떠맡는다. 레닌에게서 전국적 정치신문의 기능은 다중의 집단적 지성, 떼지성이 담당한다.

4. 1905년 혁명에서 1917년 사이 레닌의 중요한 두 가지 이론적 진전은 제국주의 비판과 국가 비판으로 나타난다. 『제국주의론』은 전자를, 『국가와 혁명』은 후자를 표현한다. 제국주의론의 주요한 문제의식은 자본주의의 독점단계에 대한 인식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것은 민족국가가 금융자본의 첨병으로 되는 시대에 대한 인식이다. 독점 단계에서 민족국가 주권은 전 세계를 흡수하려는 욕망을 갖게 되며 민족국가의 분할이라는 조건은 제국주의 전쟁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네그리는 레닌의 핵심적 통찰이 제국주의가 독점자본주의라거나 독점자본주의가 제국주의 전쟁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입증한 데 있었다기보다 바로 그 제국주의 전쟁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며, 제국주의 전쟁이야말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야라는 것을 입증한 데 있다고 본다. 프롤레타리아트를 국경에 따라 분할하는 제국주의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적 수준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단결과 민족국가 주권을 폐절하는 세계혁명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다시 말해 제국주의 전쟁을 전 지구적 내전으로 만드는 것이 레닌의 과제였다. 레닌의 내전은 러시아에 봉쇄되었지만 결국 20세기는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화시키는 장기 세기로 기능했다. 동구의 사회주의, 서구의 케인주의, 제3세계의 발전주의국가는 내전을 봉합하고 관리하는 국가형태들로 등장했고 그것의 한계는 68혁명으로 폭발했다.(20세기 사회운동사에 대해서는 조정환,『21세기 스파르타쿠스』, 갈무리, 2002 참조) 68혁명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적 삶권력은 내전을 봉합하여 관리하기보다 위로부터 내전을 공공연하게 전개하는 권력이다. 제국주의는 제국으로 이행했고 내전은 과제가 아니라 현실로, 예외가 아니라 일상으로 되었다는 것이 네그리의 인식이다. 레닌은 민족국가가 자본의 계급지배의 형식이며 오늘날 그것은 금융자본의 첨병으로 되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 국가기관을 장악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선차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기존 국가기관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기관과는 별개인 국가권력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장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네그리는 국가권력 장악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행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행사되는 것으로서의 권력, 제헌권력은 일국 수준에서의 국가권력 장악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또 일자의 지

배인 주권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주권으로부터의 분리와 탈주 및 그 탈주하는 힘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5. 그러므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1917 혁명 당시 레닌의 권력 대안은, 그것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제헌권력에 대한 직관을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날 문자 그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에트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연합체였고 오늘날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연합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프롤레타리아트 자체가 내적으로 특이한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민중이 아니라 다중으로 재구성되었다. 특이한 다중들을 잠재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일사분란한 조직적 틀이 아니라 그 특이한 힘들의 삶정치적 공통화이다. 다중의 생산은 공통재의 부단한 생산이다. 생산이 소통, 지식, 정보, 정동의 생산인 한에서 그것은 공통재의 생산이다. 생산 수준에서 전개되는 이 공통화를 삶정치적인 집단적 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다중의 혁명의 과제이다. 오늘날 소비에트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다중지성을 통해서이다.(네그리와 가따리, 『자유의 새로운 공간』, 갈무리, 2005에 실린 '대중의 지성으로 소비에트를!' 참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등 모든 상대적 민주주의들을 넘는 절대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관련자료[1)]

I. 알뛰세의 레닌과 네그리의 레닌의 차이

A. 알뛰세르와 네그리의 차이점-구조 대 주체

어떤 이들은 이딸리아 맥락에서 네그리의 맑스와 레닌으로의 이러한 회귀가 프랑스에서의 루이 알뛰세르의 이론적 발전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혁명적 맑스와 레닌으로의 회귀"라는 이러한 표면적 유사성은 사실 더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상당한 차이들을 드러낸다. 이 차이들은 특히 주체에 대한 물음과 관련하여 네그리의 사유와 서구 맑스주의의 주요한 현대의 조류들 사이에 있는 거대한 틈을 나타낸다. 알뛰세르와 네그리의 대립은 맑스 사유의 진화에 대한 그들의 독해의 측면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네그리는 맑스의 주요한 전환점이 청년기의 휴머니즘 단계으로부터 고전경제학자들을 비판하는 원숙기의 구조주의 단계로의 진전이라는 알뛰세르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 알뛰세르는 엄밀하게 정치경제학 비판의 구조주의적 지평 위에서 맑스의 사유를 틀지움으로써 분석을 노동계급 조직화를 혁명적인 주체에 정초시키는 작업으로부터 분리시켰고 그럼으로써 분석의 힘을 무화했다고 네그리는 주장한다. 정치경제학에 대한 구조적 비판은 생명체 없는 불모의 지평 위에서 진행된다. 이는 맑스가 아니다. "맑스의 사유의 진화는 '주체 없는 과정'에서 끝나는 게 결코 아니고, 무엇보다도 혁명주체의 조직화된 실재를 항상 밀접히 따라간다. 정치경제학 비판의 참된 귀결은 정말로 그리고 언제나 이러한 주체적 뿌리내리기이다."

B. 알뛰세르와 네그리의 차이점. 1-강단의 레닌 대 공장의 레닌

레닌은 혁명적 주체를 (그 물질적 욕망과 구체적 실천을) 이론의 중심으로 가져올 수단을 발견했다. 알뛰세르의 논쟁적 출발점은 학술계에서 결코 레닌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학자로서의 그의 기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학술계에 대한 고발에 있다. 알뛰세르는 레닌의 실천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실천을 이론으로 가져왔던 방식, 따라서 혁명론(혹은 더 정확하게는 이론 안에서의 혁명)을 혁신했던 방식을 제대로 알아보기를 권유한다. 이것이 알뛰세르가 레닌의 유명한 모토 "이론 없이는 혁명적 실천도 없다"를 독해하는 방식이다. 혁명적 실천의 논제들은 이론적 지평에 토대를 두거나 그 지평 안에 포섭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알뛰세르에 따르면 레닌의 천재성은 계급투쟁을 철학으로 가져온다는 데 있다. 알뛰세르는 레닌을 대학의 명예의 전당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반대로 네그리는 레닌에게 대학 밖으로 나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달라고 호소한다. 그는 계급투쟁을 철학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레닌에게 시선을 돌린다. 네그리가 좋아하는 레닌의 모토－"혁명에 관해 글을 쓰는 것보다는 혁명을 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더 유용하다."[『국가와 혁명』 후기에서, cf. Fabbrica 129, 152]－가 그와 알뛰세르 사이의 거리를 보여준다. 네그리가 보기에 레닌은 그의 구체적 실천으로부터 빼낼 수 없다. 사회적 투쟁의 폭발과 병행한 레닌 연구가 네그리의 작업에서의 파열점, 전환점을 나타낸다. 그의 이론화에서는 강력한 주체가 개념적 지평 전체를 구성하는 구조를 전복하고 재정향하는 추동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1)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그리, 『혁명의 시간』, 정남영 옮김, 갈무리, 2005와 네그리,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로 무엇을 할 것인가?」(자율평론 27호, 루드 옮김; http://jayul.net)를 참조할 수 있으며 네그리의 사상 일반에 대해서는 조정환, 『아우또노미아』, 갈무리, 2003를 참조할 수 있다.

C. 알뛰세르와 네그리의 차이점. 2-인식론적 휴지 대 존재론적 주체론적 휴지

네그리에게 레닌은 맑스주의에 대한 상이한 접근법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동시대의 욕구에 더 적실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회적 투쟁의 폭발과 맑스에 대한 레닌의 독해가 네그리에게 완전히 반反알튀세르적인 접근법을 제공했다. 만약 맑스의 청년기와 성숙기의 분리를 특징짓는 인식론적 휴지休止가 있다면, 이는 혁명주체의 (소멸이 아닌) 현실적 등장으로 이루어지며 "분석이 기획이 되기 위해 기존의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순간일 것이다. 네그리에게 중대한 시기는 인식론에 관련되기 보다는 주체성과 관련된다. "맑스의 사유의 진화는 '주체 없는 과정'에서 끝나는 게 결코 아니고, 무엇보다도 혁명주체의 조직화된 실재를 항상 밀접히 따라간다." 네그리 사유에서는, 레닌적 관점과 노동자 운동의 점증하는 압력이 주체론적 휴지로 특징지어진다.

II. 네그리와와 포스트구조의들의 접근성: 존재론적 유물론

우리는 네그리의 레닌을 질 들뢰즈, 미셸 푸꼬와 같은 프랑스 이론가들에 의해 "재발견된" 니체와 비교함으로써 더 적실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사상가들의 해석을 통해서 보면, 내가 보기에 레닌과 니체의 다음과 같은 유사성들은 그것이 뜻밖인 만큼이나 인상적일 수 있다－1) 의지will의 철학의 중심성, 2) 주체성의 물질적 구성, 3) 총체적 비판의 무서운 파괴력과 주체적 긍정의 빼어난 구축력, 4) 따라서 존재론의 자유 안에서의 재정초. 이것이 네그리와 들뢰즈 양자에게 주체론적 휴지와 함께 찾아온 근본적이고도 놀라운 전망이다. 이것은 존재론의 재정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연성과 자유 사이의 대립은 무너지는데, 이는 존재가 끊임없이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지며 주체의 힘들의 운동을 따라 새로워지면서 그렇게 된다. 서로 충돌하는 물질적 힘들의 장이 존재론의 유일한 지형을 구축하며 그래서 존재는 선험론적 고착성을 상실하는 대신에 역동적 조형성을 얻게 된다. 의지will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물질적인 주체적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할 수 있고 존재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세계에 대한 무제한적인 공격을, 존재의 절대적 파괴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에 맞추어 두 번째, 세 번째, n 번째 자연을 창조하기 위해 우리의 앞에 이미 놓여있는 자연을 파괴할 것이다.

III. 네그리의 레닌 전유의 전개

A. 네그리의 사상을 결정지은 이탈리아 상황

B. 달러의 금태환 중지와 『계획자 국가의 위기』: 비판적 맑스주의로부터 "기획적 맑스주의projective Marxism"로의 이행

C. 자연발생성과 주체성: 레닌적 조직화 1

D. 특정한 계급구성: 레닌적 조직화 2

자본주의적 생산의 지배적 구조	범례적인 계급 주체성	적절한 조직화
전문화된 산업생산	전문노동자	전문적 전위당
대량산업생산	대중노동자	대중적 전위당

E. 국가를 파괴하는 주체: 레닌과 빠슈까니스Pashukanis

F. 레닌의 현대적 재구성

G. 『자본론』에서 『정치경제학비판요강』으로

IV. 레닌주의의 삶정치학적 재전유

A. 노동력의 기술적 정치적 구성의 변화

B. 다중지성의 전복적인 몸

C. 공간과 시간

반자본주의적 결정은 주체성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곳, 제국에 대항한 "시민 전쟁"을 구축할 수 있는 곳에서만 유효할 것이다.

D. 주권 없는 독재, 혹은 "절대 민주주의"

"절대적 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제안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이 용어가 주권이라는 근대적 개념에 의해 전혀 오염되지 않았다(탈근대적 시공간의 고유한 성격으로 인해)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레닌의 사유가 여태 머물렀던 근대의 우주(주권적 산업자본주의 모델)로부터 그것을 구출(bear out)하여 그것의 혁명적 결정을 코뮤니즘과 탈근대 다중 안에서의 자율적 주체성의 새로운 탄생으로 변형시켜야만(그리고 레닌 사유의 삶정치적 성격을 인지한다면 변형시킬 수도 있다) 한다.